

제227회 통영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개 회 사

【 2023. 11. 24.(금) 10:00 】



통 영 시 의 회

-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!
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
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!
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
언론인 여러분!

- 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출발할
2024년을 설계하는 길목에서, 제227회
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
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.

- 아울러 제9대 통영시의회를 언제나 성원해
주시고,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
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
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
드립니다.

- 또한,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장 곳곳을 누비며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회기 뿐만 아니라 비회기 기간에도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
- 2023년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국·내외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.
- 연 초부터 고물가·고금리로 인해 세계경제가 휘청거렸으며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하마스-이스라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.
- 뿐만 아니라 우리시 수산물 판매 부진과 함께 관광객 증가세 둔화로 이어져 우리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.

-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. 서민생활 안정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정책 자금 등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챙기고, 내년도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.

- 통영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 기조는 민생과 미래로 정하고자 합니다. 무항산무항심(無恒産無恒心)이라고 했습니다.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습니다.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도록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.

- 또한, 통영케이블카 이후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, 새로운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미래 투자

예산만큼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승인 하겠습니다.

- 우리시는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에 이어 2023년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
- 이와 함께 관광혁신국 신설과 “투나잇 통영”을 통해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통영관광 패러다임을 구축해나가는 지금,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듬어 새롭게 도약하는 통영을 만들어 나갑시다.
-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!
그리고 공직자 여러분!
- 오늘부터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금년 시정과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.

- 시정질문, 그리고 내년도 통영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, 조례안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안전심사가 다수 예정돼 있습니다.
- 예산심사를 하는 의원님들은 3불원칙, 즉 용도의 불요불급, 집행목적의 불분명, 효과의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해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.
- 오직 민생과 통영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판단해 주십시오. 의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입증하는 회기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27일간의 정례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울러 집행부는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실한 설명을 당부 드리며, 책임 있는 답변과 자세로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입니다. 움츠러들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해 우리 모두가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십시오.
- 끝으로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뜻깊은 연말이 되시기를 바라며,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
- 감사합니다.